

제 212 호

대림 제 3 주일(C해)

1976. 12. 12.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택
인쇄인	범 석규
주간	조 성호
편집	한 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론 □



## 종말(終末)과 태초(太初)

김진소 신부

양상한 나무가지에 매어달린 나뭇잎을 보듯이 마지막 남은 달력이 우리의 감정을 쓸쓸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하기를 고대하면서 대림절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대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결부된 시기요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가 곧 태초(太初)와 같은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에서입니다. 구세주의 강생을 예고하는 대림절의 벽두부터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긴박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근극한 여유가 없이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서 이미 도끼가 뿌리를 찍는 순간처럼 임박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끝나는 반성도 아니요, 진리에 감동한 호응의 박수 소리도 아닙니다. 새로이 도래하는 새시대, 새역사, 새인생관의 전환을 지극 자기 자신의 삶 안에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주님이 뜻깊은 분으로 만나시기 위해서는 삶의 변혁이 요구됩니다. 현실주의적인 삶이 하느님 중심으로, 나에게 대한 순종이 하느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기적인 열성이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위한 열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찾아온 군중과 세관원들과 군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가르친 구체적 회개의 생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고 계신 분" 곧 구세주는 엄위하신 심판관으로 그 분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그 분은 현세적인 희망의 성취자가 아니라 세계의 심판자요 마지막의 수확을 거두는 자입니다. 그분의 할일은 참된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분의 세례는 회개의 준비가 없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성령과 불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준엄한 전달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것은 울 것이 왔다는 제님의 해방감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약속하신 은총의 때가 시작되기 위한 심판이요, 종말은 곧 태초와 같은 것이라는 신앙을 다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화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人權은 侵害할 수 없다.

인권주간을 맞아 지난 7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친구교 합동으로 기도회가 있었다. 120여명의 친구교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 설교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이우정 교수는 "문정현 신부님이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열으며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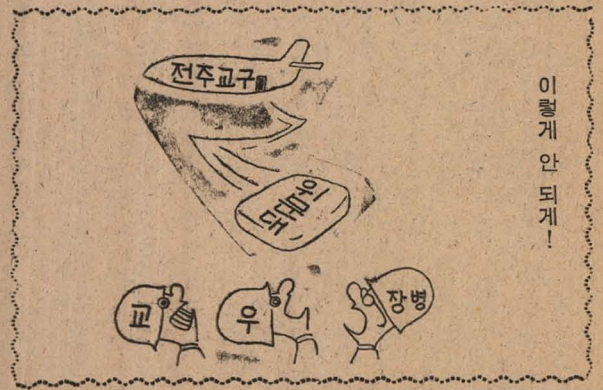
「인권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요, 생존에 불가결한 사항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 양심에 입각한 법이요 권리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나치 독일, 인도, 필리핀 등)의 지도자들은 국가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양심이라는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아 왔다. 양심이라는 말은 그 어떤이 가르쳐 주는대로(함께 안다-하느님과 내가 함께 아는) 것이어야 한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있으라, 해서 존재한 우주만물에 비해,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하느님의 동역자로, 하느님의 분신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한 것이다. 마태오 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예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hidden God,에 대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제 형제를 죽인 살인자 카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람에게 주지 않은 하느님이심을 볼 때, 인권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회복은 하느님 형상의 회복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요 미래에 닥쳐올 종말이며, 회교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인권과 안보, 이는 몰트만의 주장처럼 팽팽한 긴장 가운데 균형(balance)을 이루어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4)

김 영 신 신부

재판부는 오늘 (12월 4일)로 증인 신문술 전부 마친다고 선언한다. 진실을 밝혀 후회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증인을 기각시키지 말아달라고 옥중에서 단식 기도한 3명의 신부, 암담한 심정을 호소한 변호사들의 주장은 끝내 메아리 없이 울려 퍼지고 말았는가!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증거 조사가 충분해서인가? 아니면 김대중씨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공판처럼 재판장 집을 습격할까봐 무서워서 일까? 아무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면서 증인, 은명기 목사(信仰의自由)와 탁회준 교수(勞動問題)의 증언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 은명기 목사(광주 양림교회, 前 전주 남문교회) 증인

「기관원들이나 사칭 신자가 교직자를 사찰하고, 예배의 기도와 설교를 메모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심지어 기도회 모임을 음양으로 제지하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설교를 못하게 하는 일은 자신도 겪고 있으며 많이 듣고 보아 왔다. 예를들면 기독교학생 활동정지; 갈릴리교회, 목요기도회, 74년 이후의 명동성당 기도회, 전남 노회 사건들, 광주 무릎교회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분명히 이 사건들은 종교활동을 침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다. 유신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성직자를 구속하여 성직자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으로 되고 있으며,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신자 상호간, 성직자 상호간, 신자와 성직자, 교단과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 심지어 성직자들이 설교하면서도 “나도 언젠가 그렇게 구속되지 않을까?”하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명동사건, 광주노회사건, 충북 단양사건 등으로 성직자가 구속되어 있음).

더우기 정부 요직에 있는 분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학술적인 것도 아닌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책을 함부로 간행 배포하여 종교분열 내지는 종교탄압을 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각 교단은 연합적으로 <선교자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실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최대한 인내하면서 신앙을 호소하는 행동으로 성명서와 진정서를 정부당국에 보냈다. 그러므로 정부도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현실과 사건들 앞에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신앙고백이다.

교회가 직접 간접으로 지지 반대하며 정치 경제 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하는 성서적인 행위다. 결코 정치가 아니다. 하느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섭리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아모스, 이사야 예언서, 예수)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한국교회도 민족사(3.1운동, 8.15해방, 6.25사변 등)를 보면 국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승할뿐이다.

이렇게 비인간적 상태(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자와 버림받고 죽은자)에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해방시키교자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을 반정부, 용공분자로 만든다면 근본적 원리를 착각하

거나 특정인에 대한 체면, 아니면 고의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성직자가 신앙의 자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의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으로 응답하는 모습은 결코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성서를 근거한 신앙고백이므로 이를 단죄 한다면 성경까지도 단죄받는 것이다.」

□ 탁회준 교수 (성균관 대학)

「노동자가 정당한 일의 댓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안정 질서를 가져오는 것(헌법 제28, 29조)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제도나 누구도 노동자를 노동생산품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특별 보위법, 노동쟁의법을 발동하여 외자 차관기업에 특혜를 주어 기본질서인 노동 3권 및 임금분배 원칙을 떠난 착취행위가 마산공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산공단의 외국투자기업 111개중 92개는 일본인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일본에서 좋은 시설을 설비해 놓고도 공해로 쫓겨난 보따리 장사꾼들이 금융과 행정상 부지구입특혜, 면세 등 혜택을 받고도 노임(22,000원)은 근로자 임금수준 (23,200원) 보다도 적게 지불하고 있다. 복지시설도 없는 공장에서 변소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에서 불합격품이 겨우 20%(미국은 80%)의 높은 노동생산력인데도 임금은 일본의 5분의1 밖에 못받는다. 그러면서도 외국기업은 이윤을 많이 받아가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행동을 조정, 노동조합 신고를 악용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제약 내지는 해산할 우려도 있다.

생존권 문제는 법이전의 문제로 노동쟁의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일본자본의 착취행위는 시정해야 한다. (일본 신문 보도)

노동 임금 조건뿐 아니라 안정시설과 복지시설을 해주도록 뜻있는 분들이 여론형성을 시키는 것은 국가안보상 더욱 필요하다. (노동자와 공산당 문제로)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사회정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이는 국민전체를 위한 일이며 국가를 위한 일이다. 허리띠를 졸라맨 후에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족자본이다.」

비록 기소되었지만 이처럼 증인신문에서 참된 뜻을 다시 확인했다. (교구 관리국장)

결	(축)	훈
임 용 호 씨	차 남 임 순 성 (가브리엘) 군	
박 금 순 씨	장 녀 최 완 옥 (말지나) 양	
때 : 12월 18일(토) 11시, 곳 : 전동 성당 주례 : 김 환 철 신부		

□양 지 쪽□

(경) 사 제 서 품 (축)

모시는 글

교구내 신부님, 수녀님, 교형 자매님께  
금번 저희 교구에서는 여러분의 성원속에 부제 10분이 사제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셔서 새 사제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례 : 김 재 덕 (아우구스띠누스) 주교  
때 : 1976년 12월 16일 11시  
곳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사제 명단 및 첫미사 안내

성 명	출 생 지	관 계	첫 미 사
대수 (라우렌시오)	전북 완주	전창현씨 2남	17일 10시 반, 삼례 천주교회
복해 (세자요한)	" 김제	왕세용씨 2남	17일 11시, 김제중앙동
장나 (아우구스띠누스)	충남 천안	강재희씨 2남	17일 10시 반, 김제중앙동
김정 (요셉)	" " "	나상규씨 4남	17일 10시 반, 김제중앙동
김진 (안셀모)	" " "	김영호씨 2남	17일 10시 반, 김제중앙동
김윤 (이나시오)	" " "	한일선씨 2남	19일 10시, 김제중앙동
김소 (벨라도)	" " "	성해복씨 3남	17일 15시, 김제중앙동
김태 (안드레아)	" " "	태복래씨 3남	19일 10시, 김제중앙동
김윤 (안드레아)	" " "	김순성씨 2남	17일 10시, 김제중앙동

부제품 수품자

김 순 태 (요셉, 고산), 현 유 복 (분도, 서학동), 유 중 환 (마태오, 김제),  
범 영 배 (라파엘, 전동), 정 태 현 (갈리스도, 부안) 김 윤 태 (라파엘, 서울 옥수동)  
강 덕 수 (도마, 중앙), 조 정 오 (요셉, 삼례)

시종직 수품자

김 기 수 (요한, 둔율동), 안 철 문 (이나시오, 부자), 김 성 진 (토마스, 서학동)

시종직 및 독서직 수품자

전 종 복 (요한, 합열), 박 병 준 (비리버, 장계) 박 성 괘 (안드레아, 합열)

요심이 (176) 권병호



가톨릭 센터에서  
삼가 알려 드리나이다.  
센터 구실을 다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식당과 다방을 열었습니다.  
항상 아껴주십시오.  
-가톨릭 센터-

(祝) 전주 대건 신용협동조합 신청사 준공 (祝)

인사말씀

중동지제 맥내에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금번 전주시 전동 2가 五  
八의 九번지에 지하 1층 지상  
三층(대지 一〇一평)에 연건평  
二八二평)의 본조합 신청사를  
건립하고 오는 12월 18일  
12시 준공식을 갖고자 하오  
니 교형 자매 여러분들의 많  
은 참석과 앞으로 배전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앙  
망하나이다.

一九七六년 12월 12일  
전주 대건 신용협동조합

상 전 감 이 부 이 사 사 장 장  
" " " " " " " " 사 장 장  
유 양 이 이 이 이 이 장 김 범 이 장 한  
중 윤 동 병 길 경 귀 금 대 창 현 준 수  
현 모 주 식 용 순 남 태 원 규 재 수 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인사 (76년 12월 7일자 교구 공문 제 76-42호, 인수 일제 12월 13일, 부임일 12월 15일)

이상호 신부(신실분당 상관 주임←신태인) 이대권 신부(신실분당 진북동 주임←중앙)
안복진 신부(성실 여중교 종교감←금산) 서용복 신부(중앙 주임←군중단)
유정훈 신부(카나다 유학←성전여중교) 정승현 신부(교구 사목국 부국장←정읍)
박중신 신부(대성 주임←입실) 이태주 신부(신실 분당 용안 주임←합열)
김병환 신부(금산 주임←전동) 이종원 신부(신태인 주임←중앙)
새신부 전대복 신부(입실 주임) 양수해 신부(진안 보좌) 강덕창 신부(김제 보좌) 나궁렬 신부(전
(저장 대학원 매스컴 연구) 김진석 신부(중앙 보좌) 김운섭 신부(전동 보좌) 한기호 신부(전
동 보좌) 성태수 신부(합열 보좌) 소순형 신부(중동 보좌) 김태운 신부(창인동 보좌)
특수사목 안복진 신부(신학생 및 사제 양성 후원회 지도) 한봉섭 신부(일치 위원회지도, 해성 중
교 종교감←免 종교감 지사)
법석규 신부(免 신학생 및 사제 양성 후원회 지도) 김이환 신부(免 일치위원회 지도)



- 2. 서품 및 서임식 (12월 16일<목> 11시, 중앙성당) 많은 참석과 기도 바람
3. 지정한 신부님 신병 치료차 본국으로 출국 (체류기한은 연장 안되었으나 다시 오실 수 있다하여 갑자기 떠나실) 완쾌하시고 다시 오서 한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메아리 합창단 성가연습 (매일 오후 8시반 가톨릭 센터) 전주 시내 젊은이의 참여 바람
5. 전주교구 중고등 연합회 제3차 회장단 회의 (12월 12일<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참가비-1인당200원
6. 명동성당 3:1절 미사 사건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13일<월>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많은 참석바람.

(중앙)

전화 336511 주임 신부 이대권
33874 보좌 신부 이종원
사도 회장 이상호

- 1. 우리아 윌레회 : 오늘 오후 2시
2. 성도회 윌레회 : 다음주 <19일>
3. 영세식 : 12월 23일<목> 오후 6시
4. 판공성사, 가정방문 신부님들 인사이드으로 무기연기
5. 서품 및 서임식 : 12월 16일<목> 오전 11시 <첫미사-17일<금>오전 10시>
6. 신부님 인사 이동 : <12월 15일<수>부임과 이임-교우분의 기도와 협조바랍니다>
7. 제대 꽃대 봉헌 : 악명<10,000원>, 감사합니다.
8. 애령회 소식 : 인후동 박광래(안드레아) 상가-5,000원 회사

로그래에 의한 행사-24일 오후 8시~10시.

- 3. 판공 성사 일정 : 12월 18일<토> 오후 2시~6시 <다가동, 중앙동, 고사동>, 19일<일> 오후 2시~5시 <직장인, 학생>, 29일<월> 오후 2시~5시 <태평동, 진북동, 기타>, 21일<화> 오후 2시~5시 <화산동, 효자동, 완산동>
1. 날짜와 시간 엄수, 2. 주민등록증 지참 (교적 정리 관계) 3. 교무금 납부 바람 4. 반회장은 판공성사에 모두가 임하도록 방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2일, 23일, 24일은 영세식, 성탄준비 관계로 성사불수 없음
6. 영세식 : 24일<토>오후 5시
7. 성탄 합동 가정미사 : 빠짐없이 봉헌 하시기 바람
8. 국군 장병들에게 성탄 위문품 위문금, 위문편지 <접수-12월 14일까지 사무실에서>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박종용

- 1. 판공성사 일정 안내 : 13일-신원리 공소, 14일-왕정리 공소 15일-다리리 공소, 17일-우아동, 18일 <오후 2시~3시 30분 : 어린이 판공성사,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중·고등학생 판공성사>
20일~23일<본당신자> : 시간-오전 9시반~11시반, 오후 2시반~5시반, 저녁 7시반~8시반
3. 구역별 판공 일정 : 20일-남 노송동, 인후동, 21일-중노 1가동, 22일-중노 2가동, 23일-사정에 의해 성사 안보신 분들.
2. 영세 2단계 받으신 분의 면접 : 저녁 미사 후
3. 16일<목> 오후 환자들에게 판공성사 및 봉성체 드림
4. 신음조합 윌레회 및 교육 : 오늘 공식 미사 후
5.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수련 : <20세~40세 청년>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선교주일 : 공식 미사 후 L.M 간부 회합
2. 축! 3. 상판 공소 분당 승격 : 교구청 지시에 의하여 13일부로 상판 공소가 분당으로 승격 하였음.
4. 사제, 부제, 시종직 탄생 : 16일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현유복, 김성진, 한기호 3분>을 위하여 기도와 축하를 드립니다.
5. 한기호 신부님 첫 미사 : 19일 공식 미사에 봉헌
6. 많은 참석으로 축하와 기도 드립니다.
7. 성가 연습 : 13일부터 매일 밤 7시반,
8. 분당 판공 일정 : 20일 <1, 2, 3, 4, 5반>, 21일 <6, 7, 8, 9, 10반>, 22일 <11, 12, 13, 기타반> 23일 <직장인, 누락자> 성사시간-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 면접시 <교무금, 판공비, 도장공사 현금 봉헌 바람, 주민등록증 지참 바랍니다.
9. 성탄 및 분당 주보 협력 축일행사 : 주일 학교중고생 특별 발표회 <24일 밤 8시~>, 성탄미사 및 영세식 <24일 11시>, 다과회, 전신자 및 후보 침례 축일 반별 노래자랑 <25일 오전 1시>
10. 사랑의 선물교환 : 24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선물 각 1결씩 준비바람.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1. 미사시간 변경 :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반→7시 로>
2. 성탄 준비 성가연습 <청년, 학생> :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 미사 후<13일부터 매일 7시반>
3. 판공 성사 일정 : 13일-팔복, 종천, 14일-금암동, 15일-덕진동, 17일-병자성사 <매상자-사무실로 신청 바람>, 18일, 19일-학생, 직장인
4. 성당 신축 헌금 : 김동진, 황재화 <각 3천원>, 김원철, 이기덕 <각 4천원>, 유우동 <5천원>, 원용덕, 김장수 <각 1만원>, 김동균 <2천원>, 계 36,000원, 총계 5,163,500원.
5.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완납후에 성사 받시다.
6. 판공시 판공비 받지 않음 (대신 불우 이웃들에게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김유석

- 1. 김병환 (오한) 신부님...금산 주임신부로
2. 자모회, 장우회, 성가정회(윌레회)
3. 판공 성사 일정 : 月-풍남동, 노송동, 火-동서완산동, 水-동서교동, 金-전동, 서학동, 土-중앙경원, 다가동, 중·고등 학생, 日-기타동, 이서공소 주일 학생.
4. 성탄 전야 미사 : 8시-어린이, 10시-중고등학생, 12시-교중미사
5. 성가 시범 call : 오늘 11시(유치원)
6. 신음조합 : 18일 12시 정각-청사 준공식, 16일, 저녁 7시반-윌레회, 17일 오후-휴무
7. 젊은이들 묵상회 : 오전 9시~오후 9시, 가톨릭 센터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복자 성우회 정기총회 : 24일 자정미사 후
2. 성탄 맞이 행사 : 학생회, 주일학교에서 복권 및 프